

일본의 양계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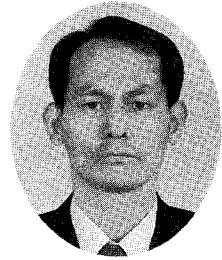
산란계

□ 농림성- 대규모 산란계 사육자와 의견교환

전국 5개소에서 농림수산성은 식육계란과 직원과 대규모 계란생산 농가와의 의견교환회의를 개최하였다. 200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계획생산에 관한 설명과 그 전제조건이 되는 생산자조직에의 가입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고, 대규모 생산자도 생산자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 그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단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농림수산성생산국축산부식육계란과는 9월말부터 10월초순에 걸쳐 전국 5개소에서 대규모 산란계 생산자를 초청하여 의견교환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9월의 전국계란자급조정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주도에 의한 사육수수관리에 의한 계획생산을, 2004년부터는 생산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생산자의 주체적 판단에 의한 생산으로 바꾸기 위한 방침이 승인되었다. 단지 그 전제조건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생산자조직(일본 계란생산자협회)에서는 특히 대규모 계란생산자의 전면적인 가입이 기대되므로, 직접 대규모 계란생산자에게 전국회의에서 승인된 결과의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생산자조직에 가입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연구원
농학박사

□ 닭혈청이나 계란에서의 Q열균 대책

전국양계경영자회의(약칭 전계회의)는 9월26일의 임원회의에서, 민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계란의 Q열에 관한 캠페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결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활동자금으로 1,000만엔(1억원)을, 회원 등으로부터 모아 일본양계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일본양계협회에서는 「불똥이 된 불씨는 직접 끄지 않으면 안된다」것으로 회원에게 11월30일을 기한으로 하는 Q열 특별대책자금의 모금운동(1계좌 10,000엔 이상)을 시작하였다. 단지 이번에는 이전에 없던 낮은 계란 가격 조건에서 자금모금을 시작하므로, 1천만엔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대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쌓인 특별재정자금에서 800만엔의 한도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자금모금 운동에 앞서 이번에 일본양계협회에 1,000만엔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Q열 검사가 최저 3회 정도는 필요하고, 이후 새로운 검사가 필요하게 될 것 같아, 모금운동의 자금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일본양계협회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대규모 양계생산자나 양계관계의 전국단체, 더 나아가 관련기업 등으로부터의 자금제출로 계란 업계가 하나가 되는 대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10월3일 아오모리현(靑森縣)에서 개최된 제 136회 일본수의학회·공중위생 분과 회에서「계란 및 난제품에 대한 콕시엘라균(Coxiella burnetii)의 역학조사」의 발표에 의하면, 검사한 닭의 혈청, 식육계란 및 난제품으로부터 콕시엘라균은 검출되지 않았고, 모두가 음성이며,「계란 및 난제품에 있어서 콕시엘라균의 오염은 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표.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크 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 격	150	161	157	131	126	61	920t



육 계

□ 새로운 닭고기 요리 출시-일본KFC

일본 센터기 후라이드 키친(주)에서는 호평중에 판매되고 있는 닭고기 제품 「츄추는 무회」 3종류를, 통상가격보다 80엔(800원)낮은 290엔(별세)으로 판매하는 「츄추는 무회」캠페인을 10월9일부터 11월19일까지 42일간, 전국의 KFC점포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츄추는 무회」는 일본산 닭고기를 판매점에서 튀겨 일본맛의 닭고기 튀김을, 채소와 함께 멕시코요리에 사용하는 옥수수가루의 원형박판으로 감싸서 만든 요리로 실물로만 맛 볼 수 있는 맛과 신선하면서 먹기 쉬워 인기 있는 닭고기 요리이다.

캠페인에서는 인기있는 「츄추는 무회」 3종류가 모두 준비되어 닭고기와 많은 신선한 상추, 향신료 같은 고추마요네즈를 촉촉하게 옥수수가루 원형박판으로 감싸 본고장의 「제맛 멕시코풍의 츄추는 무회」, 진하고 맛있는 KFC 본래의 매운맛 고추장이 튀긴 닭고기와 신선한 상추에 잘 맞춘 「한국풍의 츄추는 무회」, 냄새와 맛이 가득한 파와 KFC 본래의 특색은 매운소스를 첨가한 중화(中華)풍의 「용의 츄추는 무회」로 갖추어져 있다(계명신문 발췌).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요구

일본성계처리유통협의회는 이번에 농림수산성과 일본양계협회에 대하여 일본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침입하였을 경우, 도계장에도 사할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철저한 보장 등을 요청하는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성계처리유통협의회가 작성한 요망내용은, (1)소문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올바른 보도전달의 배려, (2)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0km의 이동금지선 규모가 너무 크고, 영향은 2, 3의 도계장으로서는 될 수 없고, (3)혹시 농장이 다시 가동되더라도 도계장에 살아있는 닭(성계)로서 출하할 수 있는 것은 450~700일후로 도계장은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없고, 유지, 경비가 막대하게 커진다, (4)산란계 농장은 낄씨, 계란가격의 변동 혹은 자주적감산의 실행 등으로 생계를 출하하기 때문에, 도계장에서는 계획입자가 안되고, 1~2개월분의 제품재고나 도체재고를 안게 되지만, 출하정지가 될 경우, 그만큼의 처분 및 비용은 계산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도계장에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어 파산에 이르게 되므로, 산업보호의 입장에서 철저한 보장이 요구된다(계명신문 발췌).

□ 10~12월 사료가격 인하

일본 농협에서는 9월22일 열린 10~12월분의 배합사료가격을 전국전축종 평균으로 톤당 200엔(2,000원)인하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주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등의 가격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사료가격 인하를 결정하였다.

일반회사는 각사별 인하폭은 다르지만 엔화강세로 환율에 영향을 주어 전반기보다 약간 높은 엔화를 예측하여 대략 톤당 350엔(3,500원)의 인하가 예상된다.

시카고 곡물시장에서의 특히 사상 두번째로 평가되는 옥수수와 함께 대두박의 풍작 예상으로 약간의 상승은 있었지만 이 역시 전반기 보다는 낮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합사료원료 비중이 가장 많은 옥수수의 경우 2004년 8월까지 미국에서 내수나 수출로 인한 재고감소는 저수준에 머물 것으로 되고, 수입어분 역시 주산지인 페루가 10월중순까지 어획금지가 내려져 있으나, 주요수입국의 매입이 없어 산지가격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해상운반요금 역시 원료수송이 활발하고 신곡의 수출이 증가하여 운반비 인상이 예상된다. 환율강세가 지속되어 증가분은 상쇄되기 때문에 주요 원료수급에 따른 인상요인이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